

이슈브리프

No. 2025-19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대일외교를 위한 제언: 한일관계의 '뉴노멀(New Normal)'을 향해

최은미 연구위원

함건희 선임연구위원

2025-07-09

2025년 한일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한층 발전될 것으로 여겨졌던 한일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023년 12년 만에 재개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와 한일관계 개선 속 한미일 정상 간 최초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캠프데이비드 회담을 이끌었던 3국의 정상이 모두 교체된 지금, 그 동안의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월 4일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높다.¹ 이는 곧, 일본이 그동안 한일관계 개선의 상당 부분을 윤석열 정부에 기댔음을 보여주는 반증이자, 정부 주도로 이어져 온 한일관계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한계로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과 일본에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고, 양국 국민들의 상호 호감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양국 젊은 세대의 높은 상호 호감도는 국민 전체의 호감도를 이끌며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변화는 한일관계를 새로운 궤도 위에 올려 두었고, 이제 양국관계는 기존의 비대칭적 관계에서 대칭적 관계로² 변화하며, 대등함과 친근감을 기반으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일관계의 구조와 인식의 변화를 기반으로, 양국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양국관계에서 한일 협력의 의의를 되새기고,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신 정부가 표방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한국 외교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여 일본 및 국제사회에 신뢰감을 주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한일의 공통 이슈를 기반으로 한일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 및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셋째, 양국의 긍정적 상호인식을 견인하는 20,30대를 중심으로 협력의 공간을 넓히고, 넷째, 양국 갈등 사안은 관리와 보완의 측면에서 접근하되 한일관계 개선을 이끌어온 한국의 노력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일관계 ‘뉴노멀(New Normal)’의 배경들

1.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와 새로운 구도의 한일관계

1965년 한일수교 당시, 한국은 일본에 비해 열악한 경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전후 복구가 한창이던 한국과 달리, 일본은 이미 고도성장기에 접어들어 세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며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있었다.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도 현저히 달랐다. 수교 전 일본이 이미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1956년)과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1964년) 등 국제기구에 가입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있던 것과 달리, 한국의 UN 가입은 1991년,³ OECD 가입은 1996년에서야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은 산업화와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1994년 세계은행 기준 고소득국가에 진입했고,⁴ IMF는 1997년 한국을 선진경제권으로 분류했다.⁵ 또한, 한국은 1999년 G20 창설 당시 적극 동참하였으며, 2010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그리고 2018년에는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를 돌파하며 ‘30-50 클럽’에⁶ 7번째 국가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1년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개발도상국(Group A)에서 선진국(Group B)으로 한국의 지위가 변경된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1964년 UNCTAD 창설 이후 처음이자, 유일하다.⁷

2020년대에 들어서 한일간의 국력 격차와 국제적 위상은 더욱 근접하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2020년 최초로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2021년, 2023년, 2025년) 초청받기도 하였다.⁸ 또한, 한국은 G7의 우선순위인 ▲인도태평양 ▲경제 회복력과 안보 ▲식량 안보 ▲디지털 경쟁력 ▲기후 변화 ▲우크라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 ▲군축과 비확산 ▲노동 9개 영역에서 기존 회원국과 동등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더 뛰어난 대응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⁹

[표 1] 한국과 G7의 분야별 지표 비교

국가	국방		경제	
	국방비(10억 달러)	GDP 대비 국방비(%)	GDP(백만 달러)	총 무역액(백만 달러)
한국	47.6 (11위)	1.8	1,712,792.85 (14위)	1,315,402 (8위)
미국	997 (1위)	3.5	27,720,709 (1위)	5,332,800 (2위)
일본	55.3 (10위)	2.0	4,204,494.80 (4위)	1,450,547 (5위)
영국	81.8 (6위)	3.0	3,380,854.52 (6위)	1,197,428 (11위)
독일	88.5 (4위)	3.3	4,525,703.90 (3위)	2,725,093 (3위)
프랑스	64.7 (9위)	2.4	3,051,831.61 (7위)	1,352,721 (6위)
이탈리아	38.0 (14위)	1.4	2,300,941.15 (8위)	1,255,809 (10위)
캐나다	29.3 (16위)	1.1	2,142,470.91 (10위)	1,156,752 (12위)

국가	과학기술		문화
	GDP 대비 R&D 투자(%)	국제특허출원(건)	글로벌 소프트파워 지수(점)
한국	4.96 (2위)	23,851 (4위)	60.2 (12위)
미국	3.45 (5위)	54,087 (2위)	79.5 (1위)
일본	3.44 (6위)	48,397 (3위)	71.5 (4위)
영국	2.80 (13위)	5,861 (7위)	72.4 (3위)
독일	3.11 (10위)	16,721 (5위)	70.1 (5위)
프랑스	2.19 (17위)	8,125 (6위)	68.5 (6위)
이탈리아	1.31 (34위)	3,099 (12위)	62.4 (9위)
캐나다	1.81 (23위)	2,388 (13위)	65.2 (7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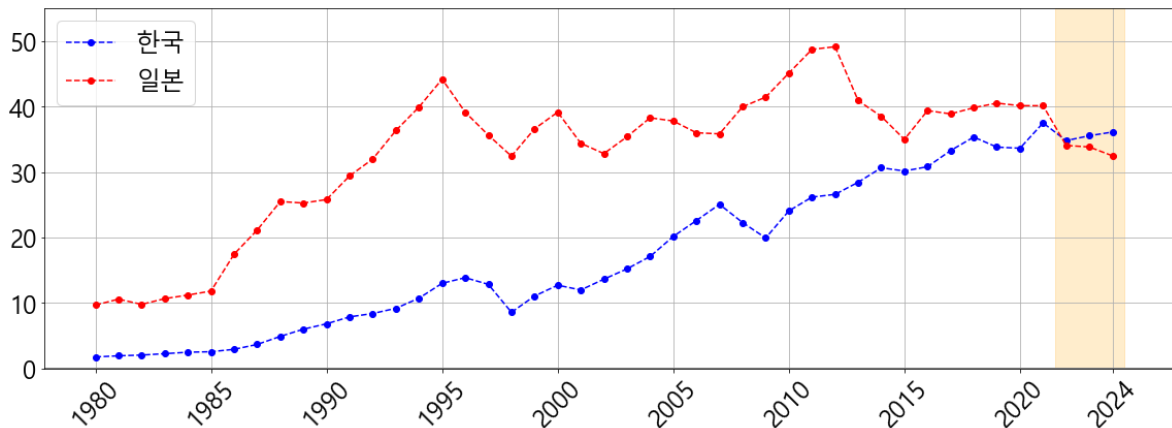
출처: SIPRI. (국방비, GDP 대비 국방비, 2024년) World Bank. (GDP, 2023년)

IMF. (총 무역액, 2024년) OECD. (GDP 대비 R&D 비중, 2023년, 영국 2022년)

WIPO. (국제특허출원, 2024년). Brand Finance. (글로벌 소프트파워 지수, 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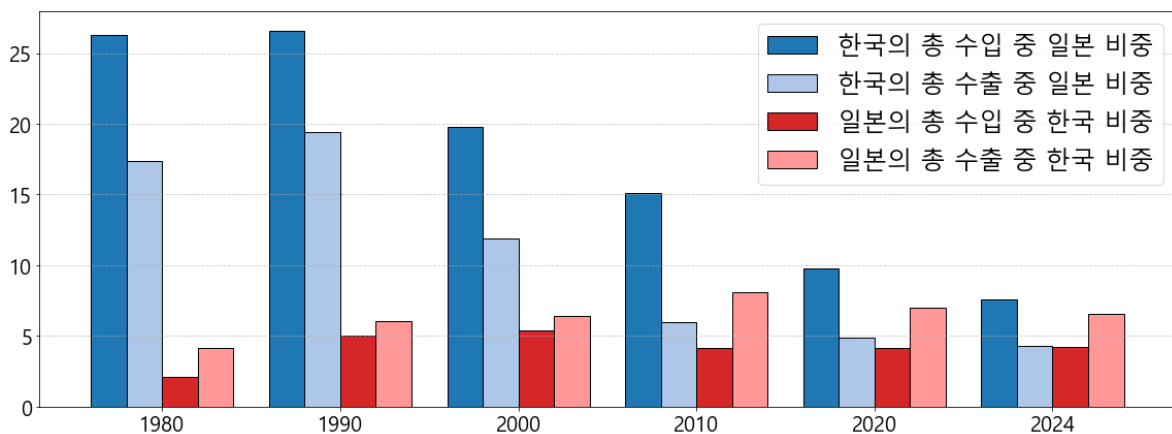
이러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 간 경제 격차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일본에 비해 약 9분의 1 수준에 불과했던 1인당 GDP(한국: 약 109달러, 일본: 약 994달러)가 2022년 일본을 추월하며 역전하는 현상도 나타났다([그림 1] 참고).

[그림 1] 한국과 일본의 1인당 GDP 변화 (단위: 천 달러)



자료: IMF. GDP per capita, current prices (U.S. dollars per capita).

[그림 2] 한국과 일본의 상호 수출입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Trade Statistics of Japan.

뿐만 아니라, 과거 일본에 상당부분 의존했던 한국 무역은 그 의존도가 줄어들었다. 1980년 한국의 총 무역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입 26.3%, 수출 17.4%로 일본의 총 무역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수입: 2.1%, 수출: 4.2%)에 비해 수입 12.5배, 수출 4.1배로 한국의 일본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았었다. 그러나 약 40년이 지난 현재(2024년 기준),

한국의 대일 의존도는 수입의 경우에는 일본에 비해 1.8배(한국: 7.6%, 일본: 4.2%) 수준으로 줄었으며, 수출의 경우에는 역으로 일본이 한국에 비해 1.5배 비중이 높아진 것(한국: 4.3%, 일본: 6.6%)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참고). 이처럼 한국의 일본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낮아진 것은 한일 경제관계의 새로운 구도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한국의 수출경쟁력 및 경제적 자립성이 기존보다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출입 국가의 다변화를 통해 일본 변수에 따른 취약성을 낮추고, 대외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변화와 발전은 **한국과 일본이 국제 무대에서의 동등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1965년 수교 당시와 비교하여 **한일 경제관계의 비대칭적 의존관계를 벗어나 새로운 구도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2. 한일 상호인식의 변화: 젊은 세대(20, 30대)가 견인하는 양국의 높은 상호 호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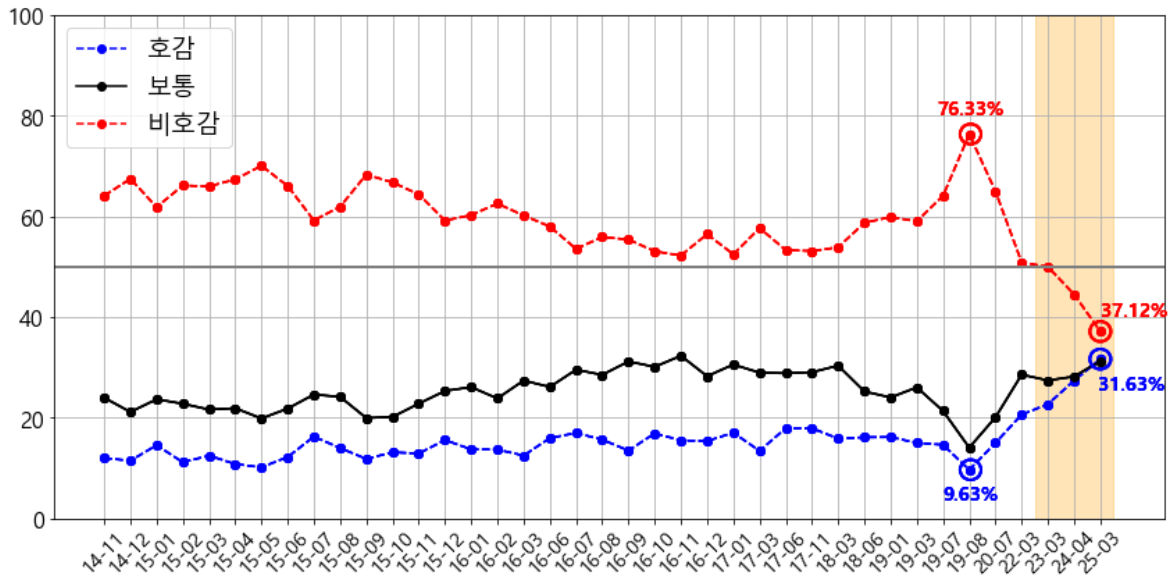
(1) (한국) 비호감 일변도(一邊倒)의 균열, (일본) 비호감을 넘은 전반적인 한국에 대한 호감

36년간의 식민지배와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에 따른 갈등과 대립의 역사 속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줄곧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했다. 한국의 여론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1990년대 이후 나타난 대다수의 여론조사가 이를 입증한다.¹⁰ 그러나 최근 이러한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진행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의 대일 호감도가 각 조사가 시행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갤럽이 199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하고 있는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 여부 조사에서는 2025년 3월 조사 결과 호감도 47%, 비호감도 47%로 동일하게 나왔으며,¹¹ 동아시아연구원에서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인상 조사에서는 2025년 6월 조사 결과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63.3%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 30.6%를 처음으로 앞지르며 2배 이상 웃도는 결과¹²가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비호감도를 넘어선 것은 한국에서 여론조사가 본격적으로 도입된¹³ 이후 처음이다.**

본원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한 일본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14년 11월부터 2019년 8월 조사까지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비호감 비율이 절반 이상을 지속적으로 상회하였으나(최대: 76.3%-2019년 8월, 최소: 52.2%-2016년 11월), 2023년 3월 조사를 기점으로 비호감 일변도(一邊倒)였던 한국인의 대일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그림 3] 참고).¹⁴

[그림 3]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 및 비호감 비율 변화¹⁵ (단위: %)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5년 3월).

[표 2] 2020~2025년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 및 비호감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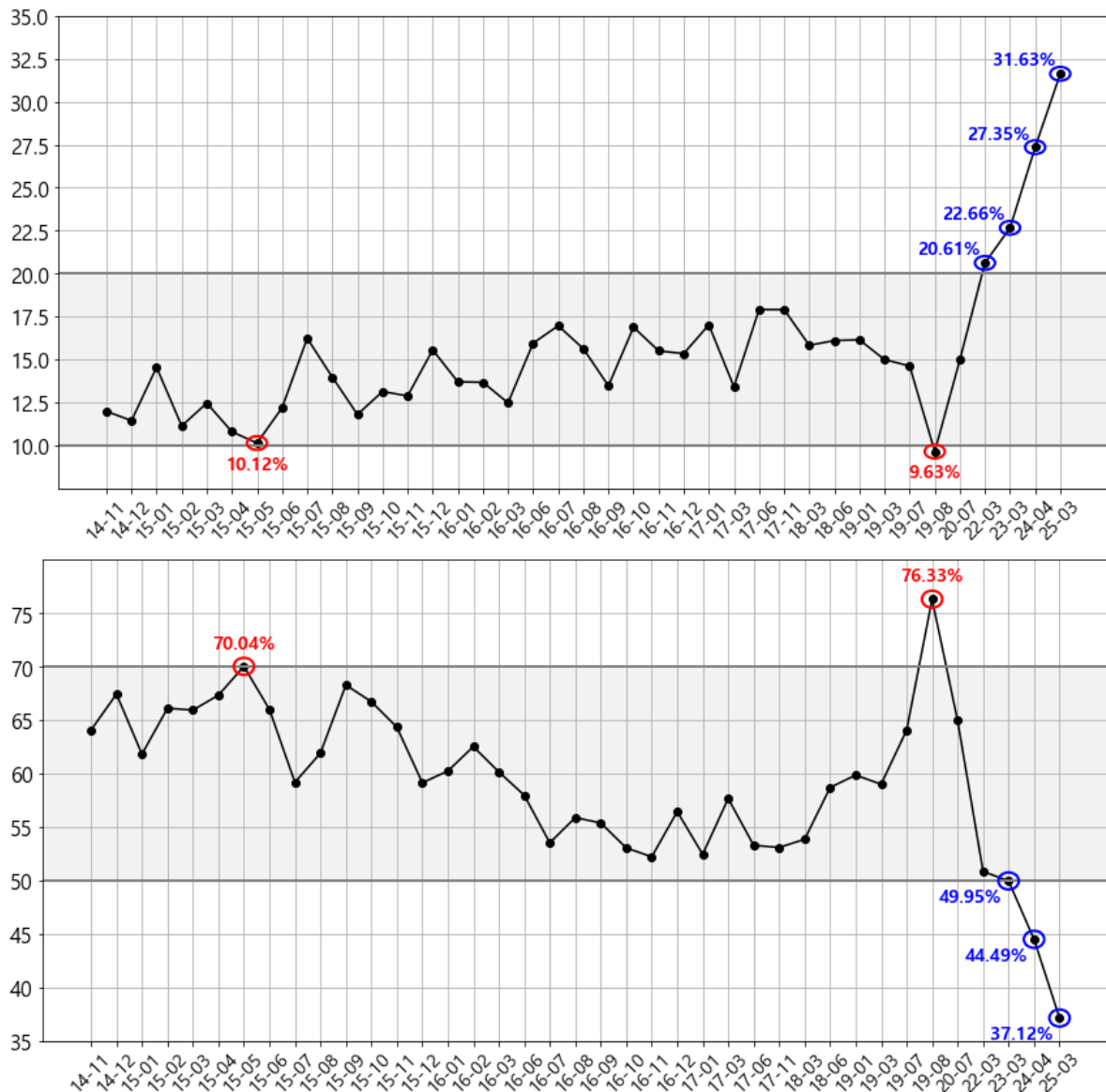
조사 시기	호감(a)	보통	비호감 (b)	(b)-(a) (%p)
2019년 8월	9.63	14.04	76.33	66.70
2020년 7월	14.97	20.06	64.97	50.00
2022년 3월	20.62	28.54	50.84	30.23
2023년 3월	22.66	27.39	49.95	27.29
2024년 4월	27.36	28.16	44.48	17.13
2025년 3월	31.63	31.25	37.12	5.49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20년 7월~2025년 3월).

이를 [표 2]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2019년 8월 76.33%까지 치솟았던 비호감 비율은 점차 감소해 2023년 3월 처음으로 50% 아래로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호감 비율의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2025년 37.12%까지 감소해 2019년 8월 대비

절반까지 줄어들었다. 이를 호감과 비호감 비율과의 차이로 보면, 2019년 8월 66.70%p에서 2025년 3월 5.49%p로 12분의 1 수준으로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비호감 비율이 여전히 호감 비율보다 높지만, 과거 압도적으로 비호감이 우세했던 흐름을 고려하면, 과거와는 다른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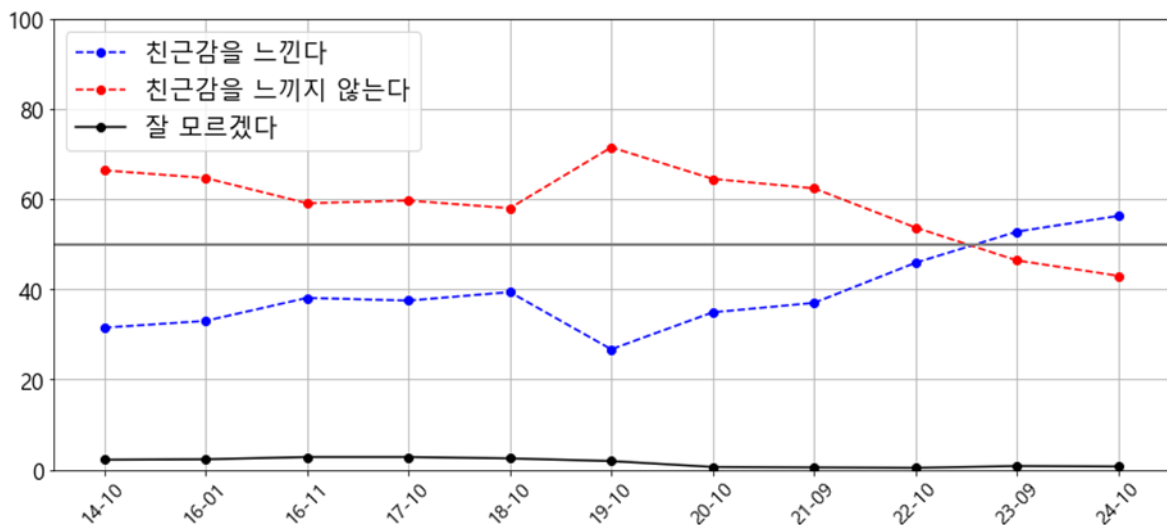
[그림 4]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위) 및 비호감 비율(아래) 변화(상세) (단위: %)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5년 3월).

[그림 4]를 통해 호감과 비호감에 대한 비율 변화로 나누어 각각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호감 비율([그림 4] 위)은 회색 음영으로 표시된 10~20% 범위에서 조사되었는데, 앞서 [표 1]에서 확인한 것처럼 2023년 3월 조사부터는 이 범위를 벗어나 기존의 패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호감 비율의 경우, 2022년 3월 조사에서 처음으로 20% 상한을 깨고 넘어선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며, 2025년 3월 조사에서는 31.6%까지 올랐다. 반면, 비호감 비율은 2023년 3월 조사에서 49.95%로 미세하지만 처음으로 50% 하한을 깨고 내려왔고, 이후 2024년 4월 조사에서 44.5%, 2025년 3월 조사에서는 37.1%까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호감과 비호감 비율 모두에서 기존에 관찰되지 않았던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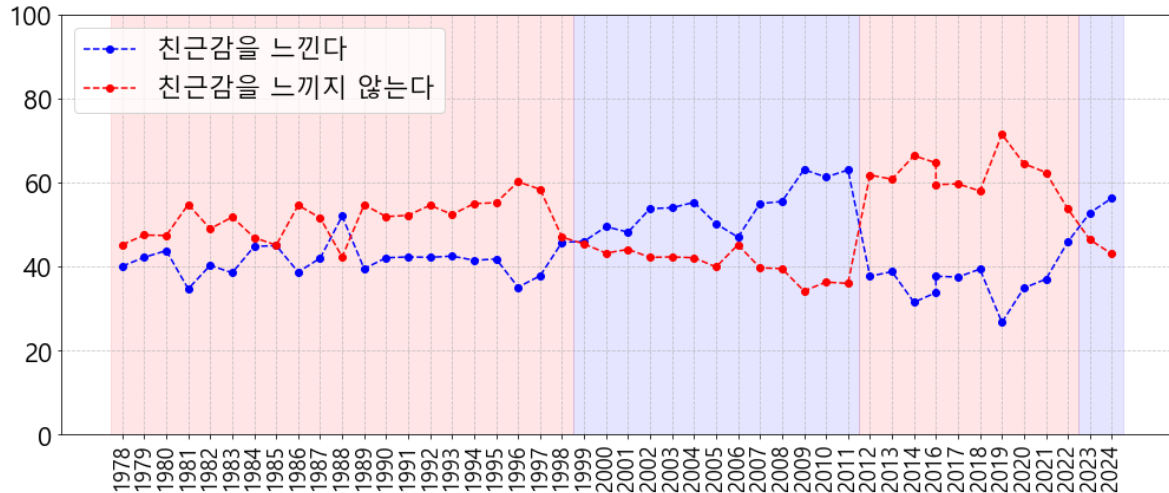
[그림 5]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 비율 변화 (단위: %)¹⁶



자료: 일본 내각부.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2014년 10월~2024년 10월).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도 유의미하다. [그림 5]는 본원 조사와 동일 기간인 2014~2024년 일본 내각부에서 조사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 2023년을 거치면서 긍정 인식(친근감을 느낀다)이 부정 인식(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을 역전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시기 한일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이 동시에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이전에 없던 이례적인 상황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 6]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 과거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긍정 인식이 부정 인식을 넘어선 적은 있었지만,¹⁷ 양국이 동일한 상승 흐름을 보인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림 6]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 비율 변화(1978~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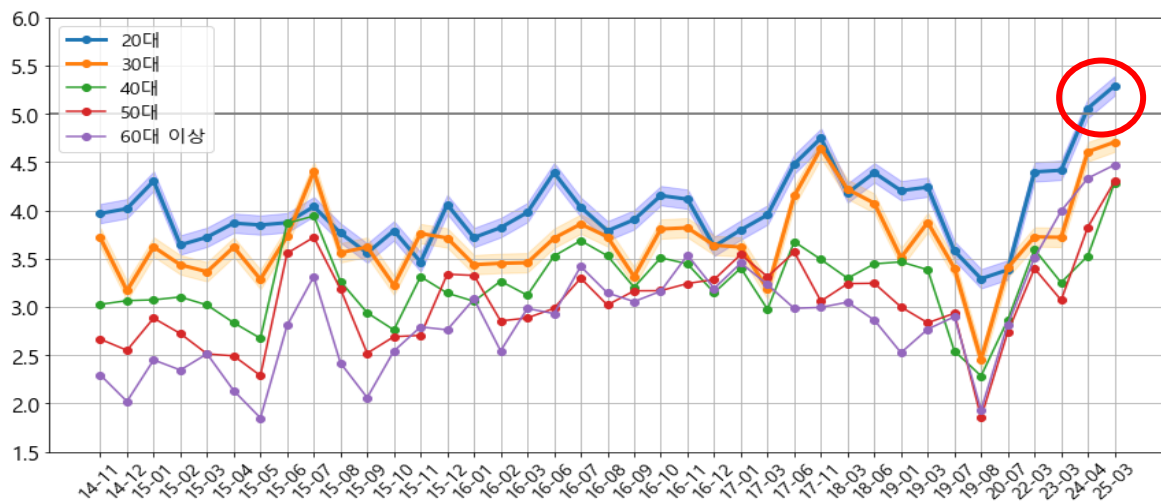


자료: 일본 내각부.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1978년 8월~2024년 10월).

(2) 상호 호감도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양국 젊은 세대

주목할 점은, 이와 같은 한일 상호인식의 새로운 흐름에 변화를 강하게 이끌고 있는 것은 양국의 젊은 세대라는 점이다. 또한, 다른 연령대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상대국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본원과 일본 내각부의 지난 약 10년간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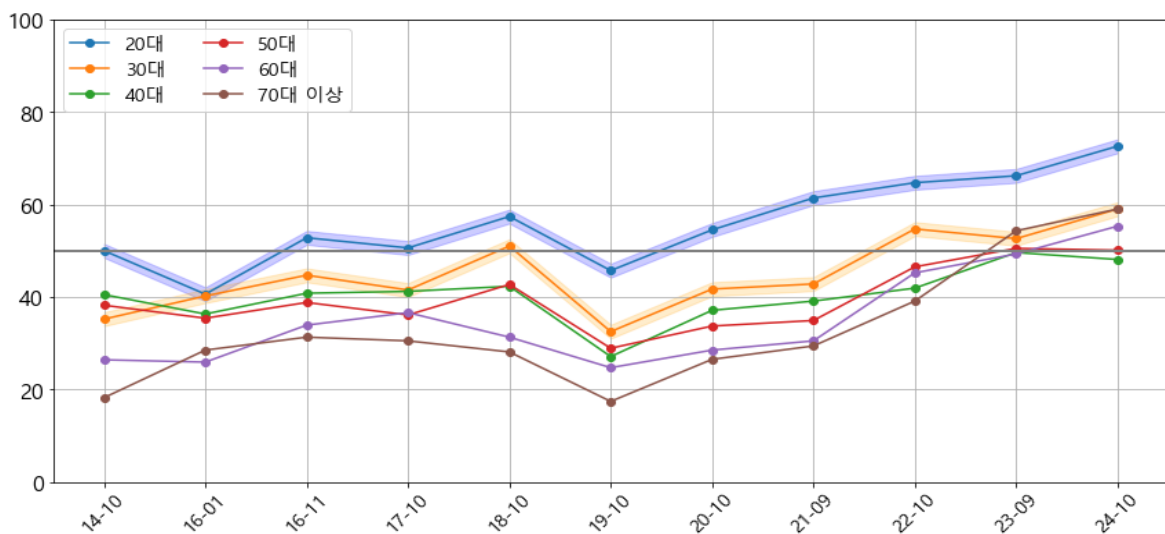
[그림 7] 연령에 따른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단위: 점)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5년 3월).

[그림 7]은 연령대별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20대(파란색선)와 30대(주황색선)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다른 연령대보다 확연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연령대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데, 2025년 3월 조사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가 시작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호감도 응답을 기록(30대: 4.71점, 40대: 4.29점, 50대 4.30점, 60대 이상: 4.47점)했다. 특히, 20대의 대일 호감도는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넘어 2024년 4월 5.06점, 2025년 3월 5.29점을 기록하며 '보통'으로 규정한 5점을 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2030 세대가 이끌고 있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연령에 따른 일본의 한국에 대한 긍정 인식 (단위: %)



자료: 일본 내각부.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2014년 10월~2024년 10월).

일본의 경우도 동일하게 [그림 8]에서 연령대별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긍정 인식(친근감을 느낀다) 비율을 살펴봤다. 일본 역시 전반적으로 20대와 30대의 한국에 대한 긍정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20대의 경우에는 2024년 10월 조사에서 72.6%에 달하는 긍정 인식을 보여주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긍정 인식을 이끌고 있었다. 30대(59%)와 60대(55.3%), 70대 이상(59%)는 20대와 동일하게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호감도를 기록했으며, 40대(48.1%)와 50대(50.1%)는 2023년 9월 조사보다 각각 1.5%, 0.4%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2014년 이후 조사 전체로 보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긍정 인식을 기록했다. 특히,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50%를 넘는 긍정 인식을 나타낸다는 점이 눈에 띈다.

요약하면, 최근 한국에서 보여지는 일본에 대한 높은 호감도는 젊은 2030 세대가 전 세대를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 세대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20대가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양국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인식 구조가 일부 해제되고, 양국 문화 및 인적 교류를 기반으로 한 친근감이 쌓여 보다 개인의 경험과 국가적 인식이 복합적으로 축적되어 새로운 상호인식 구도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한일관계의 진정한 '뉴 노멀(New Normal)'을 향해: 국익에 기반한 실용적 대일외교를 위한 정책 제언

1. 새로운 구도의 한일관계와 한일 협력의 의의

1965년 한일수교 이후 지난 60년간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사회로의 전환은 한일관계를 새로운 구도 위에 올려 두었다. 앞서 살펴보았듯, G7 국가들과 견줄 수 있을 만큼 발전된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영향력도 확대되었다. 특히, 혁신 분야에서의 잠재력과 반도체, 배터리, 디지털,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과 음악, 드라마, 영화 등 문화 분야에서의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다. 비록 한국이 일본과 같이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 있고,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현재의 저성장 구도의 회복이 더딜 수도 있지만,¹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한국의 경쟁력은 1965년 한일수교 당시 일본과의 관계와 비교하여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일본 경제를 모델로 일본을 따라잡으려던 '추격자'였던 한국이 이제는 일본의 '경쟁국', 혹은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 새로운 관계로 접어든 한일관계의 신(新) 구도를 '뉴 노멀(New Normal)의 한일관계'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새로운 구도 속 한일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첫째, 글로벌 및 지역의 공동과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주지하듯이, 한일 양국은 인구 감소,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화 등 유사한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해양안보, 식량안보 등 각종 재난과 국경을 넘는 보건, 마약, 디지털 범죄 등에 대한 공동 대응도 필수불가결하다. 이와 같은 공통의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자동화, 로봇, 친환경 에너지 분야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기술 교류 및 협력, 그리고 정책 및 제도적 협력은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높인다.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함께 직면할 수밖에 없는 과제들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같은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며, 유사한 사회발전을 겪은 국가 간의 사고와 행동 방식은 이러한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높인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부각된 관세협정과 주한/주일미군 분담금 등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등 동맹국들에게 부가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긴밀한 논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일 양국이 상호보완과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은 서로 다른 강점으로 상호 보완적 협력을 이룰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배터리, 디지털 전환, 첨단소재 등 첨단산업에서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¹⁹ 디스플레이,²⁰ 소비자 전자제품²¹에 강점이 있고, 일본은 반도체 제조장비, 핵심 소재,²² 정밀화학,²³ 기초과학과 원천기술²⁴에서 우위를 점한다. 경제지표로서 국민들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GDP와 GNI는 한국이 일본보다 높지만, 일본은 명목 GDP는 일본이 더 높고, 순위가 하락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다(한국 12위).²⁵ 한국의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2024년 기준 한국 약 39.4억 달러, 세계 13위),²⁶ 일본은 세계 최대 규모의 ODA 공여국 중 하나로(2024년 기준 약 168억 달러, 세계 4위), 국제사회에 대한 안정적인 기여와 함께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고 있다.²⁷ 문화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 문화가 혁신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글로벌 소프트 파워와 문화 콘텐츠 수출을 비롯하여 문화경쟁력을 나타내는 종합 순위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²⁸

이와 같은 각 분야별 양국의 강점을 기반으로 경쟁과 협력을 통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호 강점을 갖는 분야에서의 연구 개발, 기술 표준화 등에서 협력하고, 글로벌 공급망,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에 대해 협력하며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외교 무대에서의 활발한 외교력을 펼치는 일본을 협력 상대로 만드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이다. 일본은 G7을 비롯한 각종 국제 무대에서 주요 강대국과의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질서와 규범 형성에 앞장서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한일 협력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양국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높은 호감도이다. 인식의 변화가 곧 외교 정책에 대한 수용성 및 양국 협력에 대한 여론의 지지 등 정책 시행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 간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장기간에 걸친 문화 및 청년 교류 확대와 양국 협력은 양 국민 간 상호인식 개선과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다. 이러한 상호 호감도와 문화 교류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진 않더라도,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상호 이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편견 없이 서로를 대하는 젊은 세대의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실용적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한일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흐름이자, 미래 세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한일 협력을 위한 전략적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2. '실용'과 '신뢰'에 기반한 대일외교의 방향

新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국익'과 '실용'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한국 외교의 방향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국의 신뢰와 협력을 얻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정권 교체에 따른 대일외교 노선의 변화 여부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본이 신(新) 정부에 대한 신뢰를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관망하고, 한일 협력에 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한일관계의 긍정적인 흐름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의미의 구체화를 통해 한 한국 외교의 방향성, 목표,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3년 한일관계의 전환의 물꼬를 튼 것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법이었지만, 이후 2년여간 한일관계의 개선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한일의 시각과 대외정책 방향성의 일치에 있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호주, 인도, 그리고 EU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은 인도-태평양 전략(공식 문서 혹은 정책 지침)을 발표하며 대외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이 한 국가 혹은 한 행정부의 특성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닌,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시야의 범위에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리 외교의 목표와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신뢰는 끊임없이 의심받을 것이다. G7, NATO, APEC 뿐만 아니라, 한미일, 한중일 정상회의 등은 그러한 도전이 제기되는 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 정부는 대한민국 존립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국외교의 방향성과 궁극적인 지향점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변화는 곧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한국의 국익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조화 속 한국 외교의 목표와 지향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일자리', '경제', '인구' 등을 한일의 공통 이슈로 설정하고, '미래', '상생', '혁신',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실질협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지난 2년간 한일관계 개선 과정에서 약속된 경제안보, 반도체, AI, 양자, 디지털 바이오, 미래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 및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제도 및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양국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경제', '일자리' 등을 위한 '미래' 산업과 사회 발전이어야 할 것이며, 그 기저에는 '혁신'과 '지속가능성', '상생'을 위한 양국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 '민(民)과 민(民)', '민(民)과 관(官)'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셋째, 2030 세대 중심으로 한일 미래세대의 니즈를 파악하여, 협력의 공간을 넓히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한일 미래세대의 서로에 대한 높은 호감도와 상호인식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변화이며, 인적 및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러한 변화는 '친일(親日)'과 '반일(反日)'로 대표되는 이데올로기적 프레임이 더 이상 한일의 미래 세대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의 젊은 세대가 견인하는 한일의 긍정적인 상호인식이 양국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일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기성세대가 제시하는 이슈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2030 세대가 높은 관심을 보이는 기후변화, 환경, 인권, 저출생 고령화 및 지방소멸, 디지털, 사이버, 뉴미디어 등의 이슈에서 한일이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책임을 보이고, 어떠한 협력을 함께 해 나갈 수 있을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올해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이루어지는 다양한 이벤트 속에서 '(가칭)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한일 미래 세대 행동의 날' 지정, '(가칭)뉴 미디어

시대 한일의 정보 교환 아고라' 구축 등 청년 세대의 지속가능한 온/오프라인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다 실질적으로는, 한일 양국 젊은 세대들의 높은 왕래 속 관광에서 교육으로, 교육에서 고용으로, 다시 고용이 정주로 이어지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기준, 일본 유학생 일본 취업률 44.3%, 한국 유학생 한국 취업률 8%).²⁹

넷째, 한일 간 역사문제 등 현안은 갈등 관리와 보완의 관점에서 부족한 점을 메꾸는 노력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주지하듯이, 양국 간에는 '역사교과서 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등 갈등이슈가 주기적으로 반복해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강제징용문제 등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가깝게는 올해 6월 22일부터 3년간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는 '대륙붕 협정' 문제와 올해 하반기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도 주목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신 정부의 인식, 입장, 구체적인 방침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일본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정권의 변화와 무관한 사안에 따른 대응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변화에 따른 태도 변화로 인식되어 한일 간의 신뢰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 정부는 한일 간의 역사적 상흔을 치유하려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한일관계 개선을 이끌어 온 한국 정부의 노력에 일본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올해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이다. 지금까지의 양국관계 개선의 긍정적인 흐름이 신 정부의 대일외교의 방침 속에서 실질적 협력과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계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자

최은미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미시간대학교와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방문연구원, 외교부 연구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연구분야는 일본정치외교, 한일관계, 동북아다자협력 등이다.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이다.

함건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다. 2015년 아산정책연구원에 합류한 이후, 시나리오 기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공공데이터 분석, 여론조사 분석 등을 통해 외교·안보 정책 의사 결정에 도움될 수 있는 계량 분석(Quantitative Analysis) 연구를 수행해왔다. 참여 연구로는 “한국인의 일본인식(2014~2024): “세대와 이념”을 넘어설 수 있을까?”(2025), “전염병 모델과 COVID-19”(2020), “Exploring Possibilities: Minimum Number of Inspections Required to Detect a Violation i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2018), “한국 민방위 대피시설의 적절성 평가”(2018),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한 미사일 방어체계 효과 분석”(2017) 등이 있다. 이처럼 사회 과학과 계량 분석의 융합 연구를 실제로 수행하며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국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홍익대학교 등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시야로 학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고려대학교 정보수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통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동 대학원 통계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¹ 아주경제. ""성숙한 정치 부럽다"...日, 이재명에 기대 반 걱정 반" (2025.6.4)

<https://www.ajunews.com/view/20250604133139082> (검색일: 2025.6.11)

² 한일관계는 첫째, 힘의 수평화(국력, 영향력, 존재감 등), 둘째, 선진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와 체제의 공유, 셋째, 정부와 정부, 정부와 재계 등 제한적이던 양국 관계가 지방, 시민사회, 사회 및 문화 영역을 아우르는 다층적 관계로 변화, 넷째, 한일 간 관심, 정보, 가치 등 양국 간 흐름의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는 점에서 대칭적으로 변화했다. – 기미야 다다시. 2023. "한일 관계의 대칭성과 상호 협력 방안", JPI PeaceNet.; 기미야 다다시, 2022. 「한일관계사」. 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³ 한국의 유엔 가입 최초 시도는 1949년이었으나, 남북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련의 반대로 매년 무산되다 1991년에 들어서야 남북한 동시 가입이 이루어졌다. 이는 유엔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입을 기다린 사례이다.

⁴ 한국경제. ""슈퍼스타 한국서 배워야 한다"...세계은행, 깜짝 조연한 까닭"" (2024.8.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026613i> (검색일: 2025.6.4)

⁵ 중앙일보. "한국 선진경제권 분류 IMF 새 평가기준 발표" (1997.4.25)

<https://www.joongang.co.kr/article/3445186> (검색일: 2025.6.4)

⁶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긴 나라로, 한국은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7번째이다. – 한국경제. "세계에서 '30-50클럽' 가입 국가는 한국 포함 7개국뿐" (2019.3.18)

<https://sqsg.hankyung.com/article/2019031577821> (검색일: 2025.6.4)

⁷ 한겨레. "UNCTAD, 한국 지위 '개도국→선진국' 변경...57년 역사상 처음" (2021.7.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002004.html> (검색일: 2025.6.4)

⁸ 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다자 정상외교 데뷔" (2025.6.7)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607/131760185/1> (검색일: 2025.6.11)

⁹ CSIS. ""Bending" the Architecture: Reimagining the G7" (2024.6.12)

<https://www.csis.org/analysis/bending-architecture-reimagining-g7> (검색일: 2025.6.13)

¹⁰ 최은미. 2022. 한국과 일본,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과 한일관계. 아산리포트. 아산정책연구원.

¹¹ 머니투데이. ""일본 좋아요" 호감도 역대 최고치...20년 전과 비교해봤더니" (2025.3.2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32816504734779&outlink=1&ref=%3A%2F%2F> (검색일: 2025.6.4)

¹² 동아시아연구원. "[EAI 여론브리핑] 2025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결과 분석" (2025.6.12)

https://eai.or.kr/new/ko/pub/view.asp?intSeq=23298&board=kor_issuebriefing (검색일: 2025.6.13)

¹³ 한겨레 21. "대한민국은 여론조사 공화국이다" (2021.11.23)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51238.html> (검색일: 2025.6.17)

¹⁴ 이러한 경향은 지난 2014에서 2024년까지 한국인의 대일인식을 분석한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된다(최은미, 함건희. 2025. 한국인의 일본인식(2014-2024): "세대와 이념"을 넘어설 수 있을까? 아산리포트. 아산정책연구원). 2025년 조사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유지될 것인지에 주목하였으며, 동일한 경향이 확인되어 현재의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임을 알 수 있다.

- ¹⁵ 호감도는 응답자에게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0점(전혀 호감 없음)부터 10점(매우 호감)까지의 수치로 응답을 받았고, 이를 활용해 5점 미만을 비호감, 5점을 보통, 5점 초과를 호감으로 변환해 응답 비율을 계산하였다.
- ¹⁶ 일본 내각부 여론조사에서는 상대국 대한 인식을 '매우 친근감을 느낀다', '다소 친근감을 느낀다', '다소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로 응답을 받았고, 이를 '친근감을 느낀다'(매우+다소),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다소+전혀)로 합쳐서 사용했다.
- ¹⁷ 최은미. 2022. 한국과 일본,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과 한일관계. 아산리포트. 아산정책연구원.
- ¹⁸ The Korea Times. "Korea enters period of low economic growth" (2024.12.1)
<https://www.koreatimes.co.kr/economy/20241201/korea-enters-period-of-low-economic-growth> (검색일: 2025.6.10)
- ¹⁹ 중앙일보. "K반도체 작년 나홀로 고성장, 미·중·일 추격 더 거세졌다" (2025.6.1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2444> (검색일: 2025.6.11)
- ²⁰ 연합뉴스. "쫓고 쫓기는 디스플레이 패권 경쟁...선제투자로 주도권 굳히기" (2023.4.4)
<https://www.yna.co.kr/view/AKR20230404128100003> (검색일: 2025.6.11)
- ²¹ 한국경제. "LG전자, 글로벌 생활가전 또 1위" (2024.1.3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3019151> (검색일: 2025.6.11)
- ²² 동아일보. "'반도체 제국' 부활 꿈꾸는 日, 글로벌 7대 반도체 기업 불러들였다" (2023.5.28)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528/119512955/1> (검색일: 2025.6.11)
- ²³ 연합뉴스. "韓 정밀화학산업 경쟁력 5점 만점에 2.8점...美獨일은 4.1점" (2025.3.12)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2137900003> (검색일: 2025. 6. 11)
- ²⁴ 아주경제. "한국이 일본을 이겨?... 과학기술 격차 여전, '진정한 승부처'[과학을읽다]" (2021.8.15)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81509045811822> (검색일: 2025.6.16)
- ²⁵ 중앙일보. "IMF "韓 GDP 순위 지난해 12위 → 2030년 15위"" (2025.4.2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1169> (검색일: 2025.6.11)
- ²⁶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개발] OECD 개발협력 한국 동료검토 주요내용 (2024.5.27)
https://overseas.mofa.go.kr/oecd-ko/brd/m_20808/view.do?seq=118 (검색일: 2025.6.17)
- ²⁷ 뉴시스. "일에 커지는 공적개발원조 기대...USAID '공백' 메울까" (2025.5.20)
https://www.news1.com/view/NISX20250520_0003182804 (검색일: 2025.6.11)
- ²⁸ Brand Finance. "Global Soft Power Index 2025: The shifting balance of global Soft Power" (2025.2.20)
<https://brandfinance.com/insights/global-soft-power-index-2025-the-shifting-balance-of-global-soft-power>
(검색일: 2025.6.11)
- ²⁹ 더에듀. "[2024 고등교육 이슈] ②외국인 유학생 본국 취업률 '일본 44% Vs. 한국 19%', 대안은?" (2025.3.25)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5714> (검색일: 2025.6.18)